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10**월호



성례와 신앙성장

가을과 함께 우리 교회는 추계 성례식을 거행한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2대 성례가 있었다. 그것은 할례와 제례(祭禮)이었다.

할례법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성민(聖民)이 되는 표로써 행하여졌다.

(창 17: 9-14; 레 12: 3) 제례는 선민이 하나님께 헌제하는 방법으로 5대 제법이 있었다.

즉 번제(神人 화목의 뜻), 수은제(神人 교통의 뜻), 소제(헌신의 뜻), 죄제(속죄의 뜻), 속건제(除過의 뜻) 등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할례 대신 세례가 생겼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바 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행하여진 형식적 제례는 폐하고 다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살을 먹음(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기념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5대 제례를 대신하는 성례로서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찬예식인 것이다.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2대 성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정통 신앙노선을 지향하는 교파에서는 모두 준행하고 있다.

특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성례이다. (마 28: 19)

이는 교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예전이다.

또 세례는 욕제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음의 표징이며 (롬 6: 2),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속의 죄를 씻는 형식의 표징이다.

그리고 영적 부활의 표징이며 (골 2: 2), 하나님의 권속 및 천국에 들어가는 표징이 되는 것이다. (딤후 2: 14) 세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 위해 살겠다는 맹세이며,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특권이 부여된다.

한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로써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여 만찬을 잡수시면서 상에 놓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배어 제자들에게 준 것이다.

주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했으며, 저녁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 19-20)는 분부에 의해 행하는 성례이다.

성도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와 깊은 영교를 가지게 되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믿음을 왕성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매년 봄·가을로 갖는 성례전은 어떤 기독교의식의 하나로 착각해서 근본 뜻을 외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속화된 개인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참회가 있어야 하고, 깨끗한 생활, 거룩되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이 평온하다든가 여유가 있게 되면 인간적 생활을 사모하고 또 이 일에 집착하려는 헛된 욕망이 일게 된다.

자제할 수 없도록 힘이 미약해지고, 유혹에 휘둘러 들기가 십상인 반면, 사실화, 합리화 하려는 위선된 자기 주장과 논리를 펼 때가 있다.

매우 주의해야 할 일이고 다시한번 신앙인격과 이성을 되찾아 흐트러지려는 양심의 갈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하는 안이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나태를 불식하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 신앙예로의 힘찬 걸음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용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신앙의 성장은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그리고 북한과 공산권 선교를 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의지력이 팽배해진다.

우리 모두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조물주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로써 자아의 신앙 향상은 물론 믿음의 성장이 극대화되어 크리스찬적인 생활태도를 다져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혹시라도 믿음의 성장 대열에 빠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이번 성례를 통하여 신앙인격을 키우고, 잠재된 믿음의 불사를 기쁘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기를 소원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9호

통권 92호

- 10월호 차례 -

권 두 언	성례와 신앙성장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모범적 성도		김창인	· 4
특별제언	그리스도안에서의 성장		편집부	· 6

□ 특 집 □

성찬식

- 성만찬 어떻게 변해왔나.....남성호 · 10
- 성례식의 의의 및 참여자세.....김창근 · 12
- 옛 언약과 새 언약.....오치용 · 14

월간 충현

편집실칼럼	날로 새로와 지는 삶		오태용	· 16
찬송가감상	예수는 나의 힘이요		김하진	· 16
책 정 보	9월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17
책 소 개	성령의 삼중비밀		이형수	· 17
평가와제언	농어촌 전도를 마치고		남성호	· 18
평가와제언	여름 계절학교를 마치고		편집부	· 20
칼 빈 주 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⑩		김하진	· 23
신 앙 상 담	우리의 확신대로 모든 일이 되나요		김원남	· 26
권 찰 수 첩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6)		김원남	· 27
해 외 선 교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8
새 교 우	9월중 새교우 · 결혼 · 별세자명단		편집부	· 26
교 계 소 식	월간교계 뉴우스		편집부	· 31
교 회 소 식			편집부	· 32
10 월 행 사			편집부	· 34
편 집 후 기			편집부	· 34
표 지 설 명	볼 · 가울로 시행되는 성례식이 가을에는 10월 8·9일의 문답식, 9일의 세례식, 11일의 성찬식으로 진행된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보다 깊은 신앙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 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모범적 성도

〈갈 6 : 1 - 10〉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모범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게 사는 동안 자신과 관계있는 분들의 자랑감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의 자랑감되며,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의 자랑감되고 목사는 교인들의 자랑감되며 교인은 목사의 자랑감되고 목사와 교인은 예수님의 자랑감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범적 성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1.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혼란하며 인생은 약하고 어리석어 우리는 자칫 실수하여 쓰러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모인 우리들은 보다 깨끗하게 살아볼 마음으로 나의 잘못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아 바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범 신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신자입니다.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울며 기도해 주므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내면에 대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모범성도입니다.

2. 각자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게, 혹은 알거나 모르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면 남에게 위로가 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남에게 짐이 됩니다.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은 꿈에도 얻지 못합니다. 책

임 감당한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너희는 자기 네 집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욕심을 떠나 책임을 감당합시다.

3. 참 지도자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훌륭한 시설과 높고 웅장한 건물만 갖추면 됩니까? 진정 좋은 학교는 실력있는 인격을 갖춘 교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생명 내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권능의 교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 훌륭한 인격과 지식 권세를 가졌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를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협력하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짧은 시일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를 협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망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교에,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며 협력할 줄 아는 모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 하나님 앞에서 선을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곳이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세상은 밭이며 인간은 씨뿌리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마음대로 씨를 뿌릴 수 있으나 거두는 것은 뿌린 것 외에는 거둘 수 없습니다. 가시나물을 심어놓



고 사과를 따려고 바구니 들고 나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욕신의 욕심따라 심은 사람이 성령님의 축복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축복하며 키워주는 것이 윗사람이 심을 선이며 윗사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심을 선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욕심 때문에 악을 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심는 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효도로 선을 심고 노예생활에서도 주인에게 충성으로 선을 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를 관 형들이 배고파 할 때에 그 조카들까지 돌보아주어 원수에게도 끝까지 선을 심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명예와 평안과 부귀, 천국을 같이 받았습니다.

적과 여러분을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선을 심는 모범 성도가 됩니다.

5.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생 사회인 것 같습니다. 돈있는 사람은 돈, 권세있는 사람은 권세, 지식과 기술등, 잘 생긴 얼굴과 심지 어는 술을 많이 마실수 있다는 것, 힘과 나쁜 기술까지도 자랑합니다. 돈과 권세 많다고 자랑하면서 선한 일 할까? 못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욕만 듣습니다. 책임만 무거워집니다. 세상것 자랑하고 췌 뵈렷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며 자랑감이 있어도 함부로 자랑하면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자랑할 것 없어도 십자가 자랑하고 자랑할 것 있다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형집행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는 왜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눈물과 피는 영혼을 건지는 힘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효과 덕만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 내시니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모범 성도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남의 잘못을 비웃지 아니하고 기도해주며 자신을 살피볼 때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내집을 누구보다 먼저 지고 책임을 감당했을 때, 참된 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협력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선을 심기 위해 힘써 생명을 게두었을 때, 인생을 자랑치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하고 생명과 물질을 바쳐 자랑했을 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안이 오고 몸의 건강이 오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되는 명예가 오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며 욕신의 부요가 옵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적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범 성도가 되어 땅위의 모든 복을 누리며 천국을 숨쉬다가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면류관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안에서의 성장

편 집 부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에 관한 문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어떤 예식이나 행사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고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성장이 따르게 된다. 과연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아기를 낳았지만 몇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절대한 요구인 것을 분명히 알아.

□ 왜 성장하지 않을까

① 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성장하지 않는다.

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성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생명없는 자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 : 3)고 말씀하셨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열심이 있는데도 성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접단계에서 잘못되어 그

속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따라왔을 뿐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장의 주요 성구인 골로새서 2장 6,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전제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을 것을」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주로 받은 것'을 생각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의심과 확신이 쌍곡선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만 열심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그 생명안에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자신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8,9절에서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시며,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

다.

거듭난 생명이 최초에는 적고 미미하지만 그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잠재 능력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라는 환경과 처지 가운데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② 죄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참 거듭난 자가 잘 자라가다가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얽어 매는 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나 죄의 병기로, 둘중에 어느 하나에로 드리게 되어 있다. (롬 6 : 11-14)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죄에게 드러져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성장 저해에 절대적인 저해 요소인 죄 문제를 보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임원, 조장, 스태프, 집사, 장로등)으로 자신의 성장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란 나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없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큰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딤후 2 : 20-22)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현재 각자의 얽매이기 쉬운 죄와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등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바로 살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참 거듭난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이다. (히 12 : 1-13)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이다. 죄문제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③ 영적인 아버지가 없을 때 성장하지 않는다.

상기의 두가지가 해결이 돼도 성장이 안되는 것은 영적 아버지(spiritual fatherhood)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당장 보호와 양육과 극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과연 한 형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를 깊은 관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에 대한 성장은 별 기대 할 것이 못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도 언제 어떻게 오염되는 지도 모르게 오염되는 수도 많다. 하물며 갓 태어난 어린 형제에게는 말할 나위조차 없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영적 아버지가「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남의 삶을 회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 형제를 돌보는 일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심정과 관심으로 도와 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때 참다운 성장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을 몰라 유년부 시절부터 애쓰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어느 대학생에게 왜 그것을 일찍 묻지 않았느냐 했더니 '창피해서'는 답이었다. 성경 지식을 묻는 일이 창피한데 어떻게 자기 삶속에서 부딪치는 신앙적 갈등 문제를 내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사도 바울은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자신이 돕는 자를 도왔다. 요즈음 흔히 사용하는 제자훈련(弟子訓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울을 배격하고 심지어 심하게 깎아 내리기 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고후 10 : 10)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항상 같았고 극진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4, 15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심정과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제 세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제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이가 부모를 위하여 제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제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받겠느냐」 이는 고린도 교회 뿐만이 아니

라 데살로니가교회도(살전 2:7, 11) 디고데에게도 등 그가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와 같이 대했다. 일반 스승에서 아비의 위치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 교사의 입장이 아닐까. 주일학교의 교사가 일반학교의 교사와 다른 점이 없다면 어떻게 학생을 영적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을 위해 돈 쓰는 문제,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까울 때 어찌 아비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방송에서 넘쳐 나고 있다. 그러나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격려 해 주는 실제적인 삶을 나누며 우리의 앞에 서서 본을 보이는(빌 4:9)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리고 각자가 생각해 보자 “나는 영적 고아가 아닌가”하고

□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

앞에서 언급한 「왜 성장하지 않을까」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및 여건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여기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 보아야 성장할 수 있다.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쌓고 그 방법을 잘 알고 남보다 많은 성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장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많이 알고 가지고 있다 해도 늘 하나님과 일대 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 놓고 비추어 보는 것이 없다면 성장을 어려운 문제이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 (고후 3:18) 물주고 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늘 그분께 의뢰할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삶을 살며 돕는 형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는 자기도취에, 배우는 자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들은 많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못 되면 그저 지식만 잠깐

축적했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② 말씀을 경험해 나갈 때 성장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 3절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의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 배우기를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쫓아 다니는 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 왔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곧 히브리서 5장 11~14절에서 「대저 젖은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생활속에서 적용시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심지어 외우고 있다 해도 성장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말씀을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일이 없을 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곧 말씀 사모가 클수록 순종의 경험이 커야한다. 그래서 막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성장의 방법이 없다.

③ 연합되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내려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한 가운데 성장은 더욱 촉진된다. 각자가 어느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룹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스도인의 조그마한 교제속에서 서로 돕고, 희생하고, 섬겨본 경험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 가를 잘 말씀하고 있다. 곧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연합의 문제는 이 연합속에서 어떻게 성장이 가능한 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함께 함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많이 보아 왔다. 이런 연합을 경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에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서로 돕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의 형편이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성장 목표가 분명할 때 성장할 수 있다.

분명한 성장의 목표를 정해 놓지 않으면 항상 현재에 만족하게 되어 성장이 중단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표가 분명했다. 빌립보서 3장 13-15절에서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론자들은 이렇게 생각 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처럼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일꾼을 불러 일으키며 그것을 위해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최후적으로 위에서부터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라고 목표를 정했을 때 바울에게는 그정도까지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애를 늘 경주자같이 이 목표를 위해 절제하며 살았던 것이다. (고전 9:24-27) 이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졌기에 어떤 상황에서 일하든지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성장의 목표가 건실한 장로, 집사라면 그정도까지 밖에는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성장의 문제를 놓고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도 바로 이 전생애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목표 있는 삶을 살고 난후 생의 종점에 서서 바울사도와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다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 더 생각해 보자

이상으로 성장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을 그냥 보고 넘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지

식만 쌓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각자에게 가능한 생각을 해 보며 아래 사항을 늘 확인해 보자.

●우리가 매일의 삶속에서 하나님과 정밀한 개인교제를 지속하며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속에서 경험해 나가고 있는지?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조그마한 교제 구름 가운데에서 성장이라는 목표를 놓고 하나가 되고 있는지?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정리하고 있는지? (바빠서 성장에 지장이 온다면 일을 줄이는 것 등).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방송설교 안내

● 김 창 인 목사

-아세아방송 (1566KHz)

매주일 오후 7시15분~8시

(주일 3부예배 상황)

-기독교방송 (837KHz) -

매주일 오후 10시-11시

(주일 3부예배 상황)

매 금요일 오후 11시

● 신 성 종 목사

-극동방송 (1188KHz) -

매일 오후 8시40분~9시(주일 제외)

(엠마오성경연구 강해)

● 이 종 윤 목사

-아세아방송 (1566KHz) -

매 월요일 오후 8시45분~9시



남 성 호 목사

(제2지구 심방담당)

성만찬 - 어떻게 변해왔나

1. 성찬식의 역사적 유래

성찬식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바로 전날 12 제자와 함께 준비한 최후의 성찬이 오늘의 성찬의 기원이자 또한 의미로 되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성찬이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출연을 상징하는 전조로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며 이를 늘 상기시키며 소망을 주기 위해 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2. 성만찬의 변천과정

1) 초기교회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하였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유카리스트는 감사의 예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보통 성만찬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저녁때에 거행하였다.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거행할 때가 저녁이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처음 신자의 수가 소수였을 때는 애찬(agape)이라고 하는 친교적 모임의 형식으로 행해졌었다. 그러다가 교회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성찬과 애찬을 구분하게 된 것이다. 그후 한 때는 성찬을 아침에, 애찬(agape)을 저녁에 행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4세기 말에는 아가페는 교회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만 행하게 되었다. 그후 애찬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성찬때에 사회자가 떡과 포도주에 관하여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회중들은 모두 아멘으로 회답하였다. 그 다음에 마음의 화목을 나타내는 입맞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떡과

포도주가 분배되었다.

그 후 3세기부터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자 신입교인들은 성찬식에서 분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우기 성찬식에 사용한 떡은 회생이라고 불리워졌다.

2) 교리사적 변천과정

2세기경부터는 점차적으로 성찬의 신비적인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초대교회 교부중 이냐티우스는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 6:54)를 가리켜서 떡과 포도주를 불멸의 약속은 죽음을 막는 해독제라고 하였다.

디다케는 성만찬을 가리켜 영생의 영적 양식이라고 말하였다. 즉 떡과 포도주가 신성한 것으로 변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로 드리는 희생제물이라고 했다. 더우기 레오도로스는 성만찬때에 떡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만 경건한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 주장이 계속 내려오다가 드디어 1551년 트론티회의에서 정식으로 성체 변질론(화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즉 성찬식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로마교회와 회랍교회가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가 성별되는 순간에 이미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 되며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한편 종교 개혁파에서는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의 성체 변질론(화체설)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성찬에 현실적으로 함께 있다는 공재설 혹은 현실적 임재를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

다. (상징설)을 주장하였다. 한편 칼빈 선생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주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후 루터파는 1557년에 협화신조에 의하여 자파의 해석을 교리화하기에 이르렀지만 한편 칼빈파는 주리히 일치신조에 의하여 즈빙글리파와 1549년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루터파와 성찬문제에 있어서 갈라서게 되었다.

즉 루터는 실제설을 주장하는데 즉 떡과 포도주안에 (in), 아래(sub), 그것과 함께(cum)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견해는 성찬 참여자들은 내적 믿음에 의해 진실되고 그리고 육적 및 물질적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로마교회나 회람교회가 믿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성서에 위배되며 이성에 배치되며 예식의 근본 정신을 흐리게 하며 더러운 미신에 빠져 물질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오늘날의 성찬식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만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그대로 믿고 떡과 포도주의 절모양이나 맛은 물질

그대로이지만 성찬식을 행할 때 신부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고 말할 때에 그 본질이 내용적으로 변화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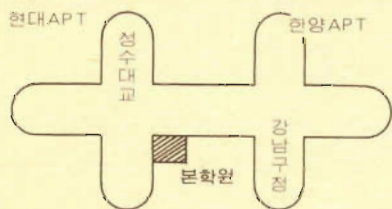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수단이며 약속이며 계속적으로 그의 몸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한다. 즉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다. (고전10:16-17; 11:23-27)

4. 결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화체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직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며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년 봄, 가을에 시행하는 성찬 예식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식에 엄숙하게 참여해야 하겠다.

운전을 배워드립니다



1. 충현교회 교역자는 50% 장학금을 드립니다.
 2. 충현의 가족을 위하여 별도반을 신설했습니다.
 3. 면허 취득때까지 책임 교육합니다. (1종에 한함)
 4.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내 수료)
- 문의처: TEL. 56-2866, 555-3504
●노선버스: 11, 14-1, 69-1, 83, 137, 46, 117, 14, 21, 24, 78, 571.

●수강료

제 1종반 148,800원
제 2종반 108,600원
속성반 63,400원

한미자동차학원

원장 김 영 근 집사



김 창 근 목사

〈장년새신자세례부 지도〉

성례식의 의의

및 그 참여자세

우리의 신앙을 돈독(敦篤)하게 하는 데는 복음의 내용과 더불어 성례가 있다. 이 성례에 대하여 확고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성례 달(月)을 맞으면서 성례란 무엇이며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정립해 보자.

1. 성례란 어떠한 것인가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예식으로 칼빈(Calvin)은 정의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북돋아 주시고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신 일의 외면적인 표시이다. 그리고 우리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간증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 2)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창17:12)와 유월절 어린양(출12:3-17)의 유혈(流血)성례가 있었다. 로마 가톨릭(천주교)에서는 7성례 즉 영세, 견신, 고해, 결혼, 미사, 성직서임, 종부성사들을 성례로 보지만 우리 개혁신의 교회는 오직 세례(洗禮)와 성찬(聖餐)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성례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두가지 만을 친히 제정하셨고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마28:19; 눅22:17-20; 고전11:23-26)

2. 세례에 대하여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마16:16; 행2:38, 41; 8:37),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창17:12; 고전7:14), 공인(公認)된 목사에게 의해

서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로마교회는 신부 이외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는 불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성경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다) 세례의 중요한 몇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 1)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보혈로 마음속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징(表徵)이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사(赦)해지고 우리에게 돌려지는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마치 도장이 찍혀진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마28:19; 행2:38; 막16:16)

- 2) 하나님의 가정(家庭) 또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표징이다.

3)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표증(表證)하는 것이다.

- 4) 물 세례 받는 것은 마음 속에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표증이다. (고전12:3)

5) 세례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맹세(盟誓)의 표이다.

- 6)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확증이다. (갈2:20; 롬6:4; 골2:12)

3. 성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연회식에서 친히 제정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구히 수행되어야 할 거룩한 예식으로 (마26:26-29; 막14:22-25; 눅22:17-20; 고전11:23-24) 떡과 포도즙으로 시행하는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寶血)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서 그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성장함에 있으며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동일한 지체들로서의 상호애(相互愛)와 교제를 두텁게 하는 것으로 (요리문답) 다음과 같은 몇가지 깊은 의의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요, (고전11:26)

2)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며,

3) 성도의 영혼 속에 생명, 능력, 기쁨, 즉 영적 행복을 인치는 예식이며,

4)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의 지체가 되는 신자들의 상호연합을 상징한다. (고전10:17; 12:13)

5) 신앙, 순종, 봉사, 충성에 대한 결심이다. (고후5:14-15)

4. 성찬에 대한 몇가지 견해

1) 로마교회 - 사제가 이것이 내 몸이라는 식사(式辭)를 말하는 순간 떡과 포도즙은 즉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체설(化體說)

2) 루터파 - 떡과 포도즙은 여전히 존재하나 그리스도의 전인격(全人格) 곧 몸과 피가 그 속에, 그 밑에, 그 안에 함께 임재한다는 즉 성찬이 시행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장소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공재설(共在說).

3) 쾰링글리파 - 단순히 주의 죽음을 기념하는 표시며 상징이요 신앙 고백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비적 요소를 제거한.

4) 개혁파견해(장로교회) - 칼빈은 루터, 쾰링글리의 중간적 입장으로 주의 성찬에 있어서 육체적 또는 장소적 임재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임재(靈的臨在)를 가르침. 즉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효과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실제로 전달된다는 견해임. 결국 성찬식은 신자들을 위해서만 제정되었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앙이 강화(強化)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5.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성찬은 무차별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오직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주의 성찬의 영적 의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함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주고 있다. (고전11:27-32).

1) 외적으로는 교회의 법도를 따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장년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년 신자라도 부도덕한 행위나 교회의 책벌아래 있는 자와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2)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살핀 후라야 참여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속죄와 구속의 효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살피야 할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살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이 옳은 일이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성찬을 보통 음식과 같이 취급한 죄악을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든 자들(약한 자)과 심지어 죽은 자들(자는 자)까지 있었다고 하였으니(고전11:30) 삼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성찬에 불참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이므로 성찬을 앞에 놓고 천저히 기도하며 준비함이 옳을 것이다.

3)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알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흘려 죄인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4)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순종, 충성,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결심의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5)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床)에서 먹고 마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6)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들 간의 사랑과 화목의 실천으로 참여함이 마땅하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의 몸을 업신여기며 그 모든 가치를 제거하는 것이요, 성찬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신성 모독적인 불경건으로 주님의 몸을 불결하게 더럽히는 일인 것이다.

6. 결론

성령이 성도의 신앙을 확립하며 이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큰 유익을 주지만 그 자체 혼자 만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말씀과 함께 존재하게 되며 그 효력 또한 단독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에만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크신 역사로 이번 성례를 통하여 온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간절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각자가 자신을 살피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맞이하자. (*)



오 치 용 강도사

(선교부 부지도)

옛 언약과 새 언약

1. 처음 말

언약(言約)이란 낱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낱말이다. 이는 그 낱말이 우리에게 생사(生死)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보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두 언약

1) 한줄기의 두 언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은 은혜언약(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속에 한 줄기로 생수의 강을 이루고 있다. '옛'과 '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구주로 오시고 세상 죄를 지신 어린양되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심을 전후하여 구분함에 불과하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함께 가르치는 것은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변치 않는 복음이다. 신약은 결국 구약의 발전적 성취인 것이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근래에 나타난 우연한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또는 구약시대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예언한 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뜻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한줄기의 두 언약인 것이며 이같은 언약이 인류의 시조로부터 주어졌고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와서 명백하게 주어졌던 것이다. (창12:3; 15:4-6; 17:7; 갈3:15-17 등)

2) 두 줄기의 두 언약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을 낳은 두 여자(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에 비유하고 있다. 두 언약은 곧 율법(율제)과 약속이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4:21-31)

이 경우 율법과 약속의 대조는 히브리서를 짚지어 살펴볼 때 첫 언약과 새 언약(히7:7, 8 등)의 대조와 같은 것이며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인 반면(히8:13) 새 언약은 부름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이니(히4:15) 위에서 언급한 은혜언약(옛 언약, 새 언약을 포함한)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볼 때 첫 언약 내지 율법은 중간에 가입된 것이 분명하다.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언약의 말씀과 은혜의 줄기에서 볼 때 율법은 새로운 줄기로서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다.

율법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 후 430년이 지난 때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것이었고(갈3:17) 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롬3:23)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인 것이다. (갈3:19) 또 모든 것을 죄아래가두었다가(갈3:22)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를 가르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중(갈3:24) 믿음의 주와 믿음의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때가 되었고(갈4:4)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안에서(고후4:4; 3:14) 담대히 새로운 안복을 가지고 율법을 봄으로써 그곳에 덮혀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고후3:12-16) 율법의 행위, 나의 공적으로 의를 이루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얻는 진리의 자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고후3:17; 요8:32) 첫 언약 곧 율법은 결코

단 하나의 구원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언약과 다른 줄기이며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면서 몰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도우면서 남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인즉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에 서되 율법을 잘살려 교훈을 얻음이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참 것의 그림자인즉(히10:1) 비록 그것이 언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여 졌으나(히8:18, 19) 이것을 깨닫는 한 율법의 말씀을 잘 살피봄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거듭 주의할 것은 율법이 돕는다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과 자유에 점차 진행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인간을 결박하고 가둠으로 죄를 알고 구원과 자유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두 줄기의 두 언약은 이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3. 옛 언약, 새 언약과 우리

지금까지 잠깐 살펴 본 내용중 구약과 신약의 은혜(믿음)언약에 초점을 두어 볼 때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며 요구하실까?

1)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언약에 관해 주요한 서신중 하나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언약에 관해 계속 언급하면서 히10:38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11장에 들어가서는 전장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들의 변치않는 믿음!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여, 우리는 받드시 더 나은 본향에 들어 갈 것이다.(히11:16)

2) 수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일군되라 하신다.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는 이제 우리 속에 명백히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쓰신 값진 편지인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이 믿음의 도를 전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편지를 발송하는 새 언약의 일군이 될 것이다. (고후 3:2, 3, 6, 8, 9).

3) 성찬과 함께 주의 죽으심을 온 세계에 널리 전하는 선교를 하라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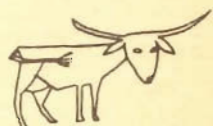
옛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이미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히11:17~19; 창22:18; 갈3:13, 14). 만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의 신앙을 물렸다면 그의 믿음을 본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 어떤 이가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이니 이는 소용없고 단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구원도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이다. 아벨까지도 이미 올바른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히11:4) 그같은 오해는 옛 언약(구약)과 율법(첫 언약으로 히브리서는 표현)의 개념 간에 혼동이 있으므로 오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경도 여전히 믿음의 언약을 가르치는 성경인 것이다. 후에 가입한 율법도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없이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다. (갈3:17)

그러나 율법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히10:1)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참제사를 깊이 깨달을 수는 있는 것이다. 결국 실패한 구약시대중 율법의 제사를 주님 예수께서 완성시키시고 자²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히13:12) 식물로서는 안되나 이 은혜로써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으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가르치시고 성찬예식을 제정하셨으니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면 주의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 신앙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요(고전11:23-26) 또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받을 것이다. (신조 제10조)

4. 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신구약 66권에 걸쳐 언약된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개혁의 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히9:10).



날로 새로워지는 삶

오 태 용

한 형제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힘을 얻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나날이 후패해 가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느냐? 바울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하였으니 천국을 향해 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성장지향이었단가를 알 수 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같지가 않다.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어져 가는데 마땅히 뒤따라야 할 열매가 별로 없다. 오히려 지금은 한창 그 성숙의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목사,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나 신학교 교수가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 알았다. 부흥회 강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가 최고로 성장한 크리스찬인 것 같았다. 그런데 커서 보니깐 그것은 현실과 많은 거리가 있었다. 일정한 코오스와 절차를 밟으면 그런 직분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또 그런 일을 담당한다고 해서 성장한 크리스찬인 것도 아니었다. 오늘의 우리 혼탁한 교계를 보면서 그런 짐작을 해보는 것이다.

날로 새로워지는 삶-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자연적으로 결과되어진다. 옛사람은 굵겨서 씨를 말려가고 우리 속의 새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성장의 삶을 사는데는 이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매일 아침 따로 메어낸 조용한 시간(Quiet Time)에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 날마다 한분 밖에 안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바울처럼(오늘 아침에)“주여, 뉘시니이까?”하면서 새로운 주님을 맞보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그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런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4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최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가 톰프슨(Will La-martine Thompson, 1847-1909)이 작시한 곡이다. 그는 오하이오주 동리버풀(East Liverpool)에서 태어나 유니온 대학을 거쳐 보스턴 음악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계속하여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세속적인 노래를 많이 써서 돈을 많이 벌었고 후에 성가를 작시 작곡하여 이를 보급하기 위해 시골로 다니면서 찬송가와 성가를 가르쳤는데 그 중의 하나다. 특히 그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새 271장)의 작시 작곡자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이 찬송에서 우리는 예수의 귀함을 느낄 수 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힘이요 생명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 만약 이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최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드는 눈물과 근심, 걱정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3절)

어찌 그 뿐이라!
예수야말로 인생 나그네길 외로울 때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2절)

예수는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 친구이시다.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해야 하겠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로서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이는 오직 주 예수 뿐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관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9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구약

1) 전도서강해; 박조준저. 기독교문사, 1980, 378P.

2. 신약

1) 로마서강해 I, 2권; 박조준저. 기독교문사, 1980, 411P.

3. 변증, 조직신학

- 1) 성경 자연과학 진화론; R. W. 마트만 저. 황창기역. 한국개혁주의신학회, 1979.
- 2) 천년왕국; 클라우스, 로버트 저. 권호덕역. 성광문화사, 1980.
- 3)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클락, 골든저. 나용화역. 한국개혁주의신학회, 1979, 467P.
- 4)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그린, 제임스 B저. 김남식역. 성광문화사, 1981, 314P.
- 5) 천사, 사탄과 귀신론; C. F. 디카슨저. 김달생역. 성광문화사, 1981.

4. 역사

1) 칼빈의 생애와 사상; 정성구편. 세종문화사, 1980, 614P.

5. 설교학

- 1) 스퍼전의 설교학; 스퍼전, C. H저. 김병로역. 신망애출판사, 1979.
- 2) 경건에 이르는 연습-목회서신 60장; 이인한저. 백합출판사, 1981.
- 3) 박조준목사 에화모음; 최영자편. 기독교문사, 1981, 290P.

6. 기독교교육

- 1) 복음과 기독교 교육; D. 캠벨 와이코프저. 김득열역.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1.
- 2) 기독교교육철학; 베버슬루이스저. 최광석역. 한국개혁주의신학회, 1979.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종현」편집실.....

◇ 책소개 ◇

제임스 맥켄지저 박광철 역

성령의 삼중 비밀

생명의 말씀사 · 132P · 500원

성령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어떤 점에 관심이 많은 것인가. 아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쯤으로 통하는 성령충만을 얻기 위한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성령에 관한 많은 관심속에서 여러가지 책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내용 깊은 전개로 일반인에게는(아마도 특별 인도 그런 것 같다) 별 도움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령의 삼중비밀」이라는 조그만 포켓용 책은 그 짧은 글에서 성령과 신자와의 관계를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성령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처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도 드물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성령내재, 성령충만, 성령의 계속적인 나타나심을 각 장으로 잡아 설명해 주고 있어 우선 신자와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쉽게 이해하게 되며 성령과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보다 나은 신앙생활이 되리라 믿는다.

이런 책을 대할 때마다 보다 생활속에서 연습이 가능한 내용의 글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게 된다. 이 형 수 집사 <월간종현 편집부>

제10차 농어촌 전도 보고 및 평가서

항상 전도인을 양성하자

충현교회가 농어촌 전도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에 부흥의 불길을 붙인지 어언 10여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왔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미자립교회를 상대로 하던 것을 자립교회로 방향을 바꾸어 1차(81. 7. 27~31), 2차(81. 8. 17~21)로 나누어 목사님, 강도사님을 주축으로 하여 4박 5일 동안 뜨겁게 작약하는 태양열도 식게하는 전도집회 결과는 결신자 총수 414명의 엄청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 본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8월 22일 유년부실에서 전도대원들이 수고한 결과 이번의 전대에 대한 제반 문제와 앞으로 농어촌교회의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대하여 재고하여 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자 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1. 전도 대원 조직

지금까지는 전도사님을 주축으로 하였지만 이번에는 목사님 강도사님을 주축으로 하여 대장에는 장로님, 봉사대원은 권사님 2인, 청년대원 3인으로 구성했다.

2. 파송될 교회 선정

지난 6월 29일부터 가졌던 농어촌 교역자 초청 훈련때 사전에 교회의 서류를 조사하여 개인으로 일일이 점검 검토하여 남성호목사가 2일동안 상담하고 전도위원 지도목사 장정일목사님께서 하루 특별히 기도원에 오셔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 교육하였다.

3. 전도대원 파송교육

지난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전대원들이 장정일 목사님의 “태신자전도란” 이양우전도사님의 “전도자료 사용법” 조준상강도사님의 “농어촌 전도란” 김석원목사님의 “반대의견 다루는법과 이교도 및 이단비

판”에 대한 열렬한 강의후에 조별기도회로 전도의 불을 붙기 시작했다.

4. 전도집회 상황

지 교회에서는 한달전부터 기도로 뜨겁게 준비하고 광고로 지역사회와 이웃교회 총동원하도록 힘을 써 전도집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목사님 강도사님들의 외치는 말씀은 전 교인들과 처음으로 나온 생명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그들의 영혼을 녹이고 말았던 것이다.

5. 전도실시 결과와 개요

- 1) 목적: 하나님께 영광
- 2) 주제성구: 계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 3) 주제찬송: 새544장
- 4) 지도: 장정일 목사, 남성호 목사
- 5) 기획: 김석원 목사
- 6) 파송기간: 1차 81. 7. 27~7. 31(4박 5일)
2차 81. 8. 17~8. 21(")

※ 도표참조

6. 평가회 건의사항

1) 전도대원 자체 건의사항

① 전도대원들은 파송훈련 기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전도대원들이 투철한 목적의식과 주제파악을 정확히 하였으면 좋겠다.

② 조직은 좋았으나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합이 좋겠다.

③ 사전에 현지 교회를 답사하여 파송되기전에 충분한 준비완료가 시급하다.

2) 전도실시에 대한 건의 사항

① 주교교사 훈련과 성경학교를 통한 주일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도 동시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② 제직훈련만 아니라 평신도를 통한 전도훈련도 동시에 가미함이 좋을 줄 안다.

③ 사전답사가 없었기에 전도집회인지 부흥집회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사전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④ 사영리 전도책자는 현지 전도에 적당치 않으므로 특별히 농어촌 전도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⑤ 좀더 확대하여 대대적인 전도집회를 통하여 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기타건의 사항

일시적인 전도 붐을 타서 흥행하는 전도전략만 세우지 말고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전도계획에 의한 농어촌 전도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

7. 82년을 향한 제안

81년 하기 전도훈련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시 내일의 밝은 전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농어촌 교회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전도대원을 파송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시기따라 때가 되면 시급하게 전도대원들을 모으는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총현교회가 전도인을 육성하여 항상 적재 적소에 파송할 수 있는 전도특공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전도 파송의 결과 얻어진 열매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계속적인 지도방침을 세워야 옳을 줄 안다.

네째, 이제는 교파를 떠나서 초교파 적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이므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대대적인 농어촌 전도집회를 통한 구령



〈농어촌 파송전도대원의 전도모습〉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옳을 줄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농어촌 교회에 관심을 쓰고 계획하고 연구하여야 될 줄 믿는다.

다섯째, 농어촌의 자립교회를 통하여 미자립교회를 육성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올리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자신들을 헌사하여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향하여 적극 지원하고 사랑할 때 한국교회의 전국 복음화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울부짖는 영혼들의 울음소리에 누가 잘 것인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개인의 소명도 있어야 하고 도시 교회의 소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영혼들을 향하여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남 성 호 목사 (제2지구심방담당)

전도실시 결과개요

대	지도자 및 전도대원	파송지역	전도실시 가 구 수	평균출석	결신자수	파송기간	특 기 사 항
1	김석원목사의 6명	충북제천	45	60	24	1차	제직훈련에 중점
2	남성호목사의 5명	강원정선	500	140	165	1차	전지역 노방전도 및 제직훈련
3	최봉호강도사의 6명	충북제천	300	120	108	2차	심령부흥회로 결신자 많음
4	장정일목사의 5명	충북서산	250	115	46	2차	태신자 심방으로 결신자 많음, 제직훈련
5	허충욱강도사의 5명	강원도 주 문 진	135	120	21	2차	주교반사, 학생, 전 교인 훈련
6	오치용강도사의 5명	충남의령	200	60	50	2차	각 구역 전도 특히 제직가정 심방
계	37명		1430	615	414	2차	

주교 여름 계절학교를 마치고

반복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매년 여름마다 실시하는 각부 주일학교의 여름 계절학교는 이제 각부의 연륜과 함께 배어 놓을 수 없는 행사가 되었다. 이에 투입되는 시간, 인원, 예산 등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이는 아마도 각부 주교의 1년 행사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도 13개 주일학교에서 3,670여명이 참가하고 1,100여만의 예산이 소요된 가운데 여름행사를 마쳤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오후에 교육위원들과 각부 주교 부장들이 모여 여름 계절학교 평가회를 가져 금년의 행사를 돌이켜 보며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기약해 보았다.

편집실에서는 이날의 내용과 각부 주교에서 서면으로 보고된 자체 평가서를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았다.

1. 준비사항

수양회전 준비사항으로

(1) 실무자간의 충분한 토의 및 지난해의 평가 참고 여부.

거의 전 부서가 실무자간의 충분한 토의없이 행사를 계획했고 지난해의 평가를 참고한 부서도 거의 없었다는 평가였다.

(2) 일시 및 기간

일시는 고등부까지의 경우 모두가 여름방학 직후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선교부는 고등부, 대학부 회원이 포함되므로 중복되는 날짜를 피함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기간도 금년에는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금년같이 교통편이 여의치 못한 경우 실제적으로 2일 정도의 시간뿐이었다. 따라서 4박 5일 정도가 좋겠다.

(3) 장소

본 교회당에서 실시한 영아, 어린이, 새신자, 유

치부, 유년, 초등부는 한결같이 장소가 협소했고 초등부 5학년은 기도원에서 5학년 수양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2. 생활지도

(1) 식사 및 간식

유초등부의 경우 각자가 도시락을 지참키로 했으나 미지참자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또한 기도원에서 실시한 부서의 경우 현재의 식대로는 충분한 식사가 안되니 식비단가를 현실화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식사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순서 진행에 차질이 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나 시정되고 있지 않다.

(2) 숙소·집회장소

본 교회당에서 실시한 부서는 전체적으로 장소가 협소했다.

기도원은 장소가 충분했으나 주위환경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기도원 숙소에 방충망 시설이 안되어 있고, 청소 용구가 부족하여 청소를 할 수가 없고 잦은 정전에 대비한 대체 전원이 없어 매우 곤란을 겪었다. 또한 세면장 사용의 불편함, 눈병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점등은 필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매점운영

기도원에 있는 매점운영은 프로그램 시간외에 까지 매점운영을 하여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조별 모임 시간에도 매점에서 간식을 사다 먹으며 하는 조가 그렇지 않은 조가 있어 무척 불편했다. 수양회 기간중에는 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4) 교통

각부의 협조로 원만히 됐으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가는 날과 오는 날은 거의 반나절을 수중에 보

낼 수 밖에 없다. 충분히 재고 되었으면 한다.

3. 교육내용

(1) 강사문제

금년에는 원칙적으로 대내 강사로 하기로 했으나 몇개 부서에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 강사를 조빙했다. 처음 실시된 대내강사는 주로 해당 부서 교역자가 담당했다.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부서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지도 교역자가 주강사를 하기에 관리에 애로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외부강사의 경우 외부강사가 일주일전에 반장 훈련을 시키고 주제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며 좋은 결과를 가진 부서도 있으나 어느 부서는 주제 전달이 불확실하여 주제와 다른 내용이 준비되고 강사 자신이 외부의 다른 시간 약속 등으로 수양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2)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충분히 주제와 수양회 목적과 합일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강사가 자신에게 좋은 형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4. 재정문제

식상비, 식비, 의료비(금년 경우 눈병으로 인해)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할 때 교사들이나 기타 부문에서 찬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충당 할 수밖에 없게 된다.

5. 반성 및 제언

수양회가 주교 교육에 있어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목표있는 행사인 만큼 그 계획과 진행, 관리 평가등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각 부서가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보고된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를 분석해 보면서 내년을 위한 제언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양회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계획), 교육내용(강사 및 프로그램), 관리(생활)가 잘 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1) 계획 및 준비사항

① 주제설정 및 목표수립 - 해당 부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과연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하여 교사와 지도자간에 긴밀한 토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좋다. 흔히 강사의 특

징적인 면이 주제와 목표로 설정되니 3년, 6년 단위로 볼 때 학생들은 반복되는 내용의 수양회를 많이 겪게 된다.

② 교사훈련 - 교사훈련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수양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 가운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수양회전에 충분히 수양회에 대한 목표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전교사가 필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 작성 - 으레 수양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주제와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특히 유의할 점은 성경공부와 친교와 행사, 자유시간 등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교육내용

주로 강사에게 의뢰하게 되어 있는 수양회의 내용은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나머지 시간중에 보이지 않지만 계획한 사람이 의도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강사의 강의와 실교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은 적당히 보내면 된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수양회의 출발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의도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수양회 관리.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더욱 힘들어진다. 관리는 수양회의 전체 진행과 학생들의 생활 관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진행이 일관성 있어야 하며 학생 생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효과적인 수양회가 될 수 있다.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집을 떠나 며칠씩 공동생활을 한다는 일이 수월하게 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건은 필히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저 인원이나 많이 데리고 가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경우보다 규모있는 계획과 진행, 관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양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양회전 준비모임을 각 부서별로 갖되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회계, 서기, 진행, 관리, 프로그램 작성등에 관한 것은 아주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전에 실무자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편집실>

1981년 계절학교(여름) 실시결과 개요

* 인원제는 강사포함.

구분 부별	행 사 명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기 간	장 소	강 사		참 가 인 원 (명)				참가율 (%)	지 출
							대 외	대 내	학생	교사	기타	계		
1. 어새부	제14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 12 : 2	590	7.27-30	본교회		김정훈	88	31		119	75.32	147,680
2. 영아부	제13회 영아부계절학교(여름)	사랑은 오래 참고	고전 13 : 4	사랑은 사랑은	8.25-26	본교회		이성근 정소영	320	41	학부모 231	592 (361)	81.31	631,680
3. 유치부	제28회 여름성경학교	순종하는 믿음	엡 6 : 1	잘 믿는 아이	8.10-13	본교회		김창근 정연희	344	74	학부모 83	501 (418)	99.05	838,900
4. 유년부	제28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자라나는 믿음	엡 4 : 15	397	7.27-30	본교회		김은숙 안석렬 김장근	377	79		456	88.89	710,400
5. 초등부	제28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기도하는 믿음	엡 4 : 15	350	7.27-30	본교회		장정일 이양우 김이경	349	72		421	83.70	680,810
6. 중등부	제19회 하기수양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 : 18	413	8.3-6	충현 기도원		최봉호 김양태	290	52		342	97.71	1,611,600
7. 고등부	제19회 여름수양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 : 18	214	8.10-13	충현 기도원		조준상 윤태근 유희섭	242	26		268	116.5	1,389,945
8. 대학부	제12회 하기수양회	풍성한 성장	엡 4 : 16	321	7.20-23	충현 기도원	문창수	허충욱 성주진	139	18		157	114.60	992,880
9. 청년부	제11회 하기수양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히 3 : 1	380	7.15-18	충현 기도원	최해일	이승근	190	8		198	94.29	1,074,010
10. 장년부	제4회 하기수양회	성령의 은사	갈 5 : 22, 23	201	8.7-8	충현 기도원	김재술	김경신	214	33		247	84.88	666,470
11. 노년부	제6회 하기수양회	훌륭한 신앙의 조상	빌 3 : 12-14	324	8.24-25	충현 기도원		한영철 김창근 장정일	153	30		183	87.14	1,071,700
12. 산교부	제3회 하기수양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골 3 : 1	628	8.3-6	충현 기도원	조성범	박동실	76	19		95	94.06	699,560
13. 선교부	제3회 하기선교훈련	내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이 되리라	딤후 2 : 21	625	7.21-25	빙산여삼 수양관		오치용 유국남	84	8		92	115.0	1,003,480
계									2866	491	314	3671 (3357)	92.0	11,519,115

칼빈주의 성령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1. 성령의 신격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령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든지, 16세기의 소기니우스, 근대에 와서 샤베리안주의자들과 유니테리안 교파에서는 성령의 신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성령이 신이 되심을 의심없이 믿는다.

그러면 칼빈주의가 성령의 신격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령에게 사용된 이름이 신이심을 증거한다.

성자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마 1:21, 25)란 이름을 가진 것처럼 성령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혜사”(파라카레오, 요 16:7)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4)고 책망했다.

2)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에게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자에게 사용된 것처럼 성령에게도 사용되었다.

① 영원성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속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도 영원

하시다. (히 9:14)

② 전지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이 성령도 그러하다. (고전 2:10-11)

③ 전재성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도 어디나 다 계시며 역사하신다. (시 139:7-8)

④ 생명과 진리의 영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인 것과 같이 성령도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롬 8:2),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심같이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다. (요 16:13)

3)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사할 받지 못한다.

성부 하나님을 훼방하는 죄를 용서할 받을 수 없듯이 성령을 훼방하는 죄도 용서할 받을 수 없다. (마 12:31-32) 다.

4) 장래 일을 알려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다. (요 16:13)

5) 사도들을 파송하셨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자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령의 명령을 따라 파송했던 것이다. (행 13:2-3)

6) 창조에 참여하셨다. (시 33:6)

7) 여러가지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 (고전 12:4-11)

이상과 같은 이유로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한다.

2.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1) 성경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

성경은 성령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가장 완전한 예술품이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상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

① 언어를 선택하셨다.

성령은 많은 언어 중에서 구약을 기록하는데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 신약을 기록하는데는 헬라어를 선택하셨다. 히브리어는 구약시대에 그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언어였다.

또한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벧전 1:10-11)

② 사람을 선택하셨다.

다시말해 선지자와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엡 2:10) 성경을 기록한 자들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성령께서 특별히 간섭하셨다. (벧후 1:21) 그렇다고 성령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사용하실 때 기계처럼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저들을 간섭하신 것이다. 즉 그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들이 성령의 간섭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경을 기록한 연대와 장소가 각각 다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③ 재료를 모으셨다.

성경 자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록할 당시 저자들이 재료를 모으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사34:16)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딤후3:16) 책이다.

2) 성령의 사역

① 만물 창조에 역사한 성령

만물 창조에 있어서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다. (시26:13; 33:6; 44:30)

그러면 성령이 창조 역사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창1:2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지상 세계에서 능력의 신으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발생시켰고 성자 하나님은 완성시켰다. 다시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정연한 세계가 된 것이 아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을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정돈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이다.

인간 창조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홀로 지으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는 역사를 하신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다. (창2:7; 시33:4)

그리고 성령께서는 재창조(recreation)의 역사를 하신다. 그것은 죄인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일이다. (요3:1-8) 성부 하나님은 밖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내부에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기억할 것

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구속, 성화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칼빈주의 견해다.

② 선지자들에게 역사한 성령

여기서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다. 몇 사람만 들어 가며 그들에게 예언된 성령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이사야 선지의 예언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가 받으실 성령의 성격을 크게 세가지로 예언했다. (사11:2-4)

① 지혜의 재능이다.

그를 가리켜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며 지식을 이해하는 힘이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해는 해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마13:53-59)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해한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4장),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 왔을 때 (요8:1-11),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다.

② 성령의 실행력이다.

여기서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다.

모략이란 사업에 앞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힘이다. 또한 재능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이다. (잠24:3-6) 사업의 성패는 계획하는 모략과 실천에 옮기는 역량이라 하겠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모략의 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재능의 신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예수

님은 두가지가 다 겸비된 분이시다.

③ 경외의 힘이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격은 인격중의 최고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지 모르나 경외심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찬 인격의 표현이며 힘을 말한다.

둘째, 에스겔의 예언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겔38장 참조)

①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은 마치 해골때로 남은 것과 같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다. (마24:32참조)

② 개인 영혼의 중생이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과 그 참혹상이었다. 해골때들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의미한다. 그러나 해골때를 살리는 능력은 (요5:25) 바람과 같은 성령의 힘이다. (요3:8; 행2:2) 성령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③ 재림때의 육체 부활이다.

마른 해골때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 재림때 죽었던 육체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준다. (요5:29-30)

셋째,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 한다. (욥2:28-29)

①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신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삼위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마

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인간 세계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고 찾아 오신 날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인간 세계에 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인간을 찾아 오시어 역사하시고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도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신다. (고전 3:16; 롬 8:9)

㉔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선지자들을 중심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역사하였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 주셨다. 여기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은 빈부귀천, 유무식, 노예 주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부어 주신다는 뜻이다. (고전 1:26-28)

㉕ 남여 종들에게 부어 주신다.

구약 시대에는 남종들에게 많이 임했으나 이제는 여종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 (행 1:14)

㉖ 꿈과 이상을 보여주는 영이다.

꿈은 깊이 잠들어 무의식중에 있을 때 보여주는 것이고 환상은 의식이 있을 때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나

타나신 때가 많다. (민 12:6)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했다.

또한 성령은 장래 일을 알려준다. (눅 1:41-42; 47, 48; 67-79; 행 21:9-11)

㉗ 오순절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이 약속은 요엘 선지를 통하여 (욥 2:28-32),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 3:4) 예수님 자신이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요 14:16-17)

이러한 예언과 약속은 오순절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과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기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㉘ 방언의 차이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그러나 방언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고전 14:2) 그러므로 방언은 말하는 개인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알아 듣지 못 하는 말을 하므로 은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사도들이 받은 방언의 은혜는 자기와 하나님외에는 모르는 말이 아니었다. 외국인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보통 방언은 내 영으로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나 사도들이 말한 방언은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말이었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방언은 말하는 개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방언이었지만 오순절 때 받은 방언은 세계 각국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자유 자재로 구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방언이었다.

㉙ 이적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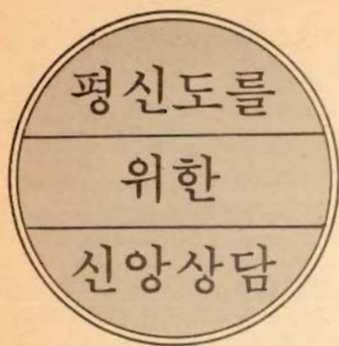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행 2:43)

그러나 오순절 때 나타난 이적과 현재에 나타나는 이적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특수한 은혜였다. 그들은 죽은 자도 살렸다. (요 11:8) 오늘날 나타나는 이적 중에는 많은 병자는 고치나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죽은 자도 살렸다. (행 9장 참조)

㉚ 성경 기록의 특이성 (영감의 차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와 사도들의 영감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여 만대 만민에게 신앙의 표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무리 훌륭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같은 권위는 없다. 사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글을 썼으나 그 모든 글을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권위에는 비길 수 없다.





모든 일이 우리의 확신하는대로 되는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하에서 이루어져

질문 /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꿀 때 그 바꾼 생각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진대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사람이 생각을 바꾸거나 믿음을 가지면 가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답 /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답 / 그 말은 사람들이 살아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처세술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세계나 구원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신앙세계에서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실 때 이루시며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지 인간의 주관적인 형편에 의지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신앙세계의 모든 일들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믿음대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

고 순종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모든 일에 의욕과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당신 자신을 계속 믿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 역시 참 신앙세계에서는 허황된 말이며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의 원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미래의 일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이 천국가기 원한다 하여

천국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가 원하여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천국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신앙세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므로 많은 경우 인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는 아주 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괴롭기만 하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앓게 된다든지 살기 원하는데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을 살피고, 기도하며 맡기고, 안심하며 의지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9월 중 새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미아 2구역 박두호
길음 3구역 권선옥
광희 2구역 이경자
미아 5구역 배 홍
길음 2구역 박명덕
광희 1구역 김정원
쌍문 2구역 오기수
장위 1구역 이정훈
안암 1구역 안용화
정릉 1구역 전제철
쌍문 2구역 노호선

● 2 지구

구의 1 구역 정임순
구의 1 구역 주애자
답십리 1구역 황정연
강동 2구역 최지순
마장 2구역 허경숙
연목 2구역 박용구
종로 3구역 최철호
석관 2구역 최경희
행동 2구역 서민정

● 3 지구

익수 2구역 문승길
신당 3구역 라점심
성수 3구역 박동열
신당 5구역 채연선
신당 3구역 정재희
광희문 1구역 윤지애
성수 2구역 조복만

● 4 지구

금호 2구역 조순희

개나리 2구역 손 철
묵정 1구역 윤명희

● 5 지구

서초 1구역 최원규
용산 2구역 이금자
사당 2구역 박옥선
용산 2구역 이옥선
상도 2구역 김종태
안양 2구역 김인순
서초 2구역 이춘자
봉천 2구역 허인규

신림 3구역 김순희
시흥 2구역 김정태

● 6 지구

인현 2구역 박승희
개봉 2구역 박채남
도화 2구역 지승길
목동 2구역 강영신
연희 2구역 조필남
함정 2구역 유순옥
진양 2구역 유부현
정파 2구역 최은숙

● 7 지구

서대 1구역 유근일
오장 2구역 이은목
종무 1구역 김정순
율지 2구역 김기열
장신 1구역 김미숙
장신 2구역 이남진
송인 2구역 이경희
창신 2구역 이경자

* 축하합니다 (9 월 중 결혼)

- 김원호군(김기정장로 이정숙권사 아들)과 정매리양 (정석진씨 이대순집사 딸) 5일
- 남명숙양(남은균씨 황성례집사 2녀) 5일
- 백화순양(영아부교사) 7일
- 최택상군(김정환권사 아들) 18일
- 박선영양(박윤민씨 고남균집사 딸) 17일
- 노병관군(김화련권사 손자 노명덕집사 아들) 19일

- 최경애양(정태옥집사 딸) 21일
- 한성진군(박길순집사 아들) 25일
- 김 훈군(이옥녀권사 아들) 22일
- 장 명군(이예강권사 아들) 26일

* 위로드립니다 (9 월 중 별세)

- 윤용선씨(장안구역) 2 일
- 이원철씨(행당 1 구역) 8 월 20일

□ 권찰수첩 □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 (6)

(1) 권찰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심방하는 권찰이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의를 갖추는 일은 이미 어려서부터 가정과 생활주변에서 생활하며 배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방하는 자는 힘써 노력하여 예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만일 심방하는 권찰이 상하구별이 없다거나 남녀구별없이 행동하여 예의에 벗어난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심방의 효과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교회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2) 권찰은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심방하는 권찰들은 어떤 집에 들어서든지 그 집 형편을 쉽게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는 자에게 위로로, 낙심한 자에게 소망과 삶의 용기를 더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한 권찰이 어떤 집에 심방을 갔는데 한약을 달이는 냄새가 나는데도 반가이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식구들만 보고 이 집에 무슨 기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인이 말하기를 가족 중 한 사람이 앓아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마침 심방을 오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심방하는 권찰이 이렇게 통찰력이 부족할 때 심방을 받는 집의 식구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에민한 통찰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랜 심방 경험을 쌓아 이 통찰력을 키워야겠다.

(3) 지극히 정성어린 심방을 해야 한다.

권찰들이 심방할 때 정성없는 심방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왜 정성이 결여된 심방을 하게 되는가?

첫째, 심방하는 자의 마음이 심방에만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때이다.

심방을 받는 집에서 푸대접을 한다든지, 심방 받을 만한 자세가 안되어 있을 때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 심방을 해야 한다.

둘째, 심방하는 자가 몸이 피곤할 때 정성어린 심방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방하는 자는 건강에 항상 조심해야겠다.

세째, 준비가 부족할 때이다.

심방하는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없이, 심방의 목적도 뚜렷하지 못할 때 정성어린 심방을 할 수 없게 된다.

네째, 시간에 쫓기게 될 때 정성어린 심방을 못하게 된다.

심방하는 자는 이곳 저곳을 다녀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게 되면 무성의한 심방을 하기 쉽다. 그러므로 심방할 때는 추호도 시간에 쫓겨야 할 일은 만들지 않아야 하며 너무 많은 약속이나 계획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심방하는 자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오로지 심방에만 그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권찰이 되어야겠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지난 8월 22일 인도네시아교회 답사팀(이광선 목사·임준복 전도사등)이 내방하였으며 1980년 12월 말로 중단되었던 장기사역 선교사수속(대통령 특별법에 의한)이 지난 8월로 재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 따르는 수속이라 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에서 장년 14명, 어린이 2명이 결신하였습니다.

기도제목

- ① 할렐루야회관 신축계획의 형통을 위해
- ② 영주권 수속이 잘 되도록
- ③ 오지사역에 따르는 위험이 제거되도록

홍콩-홍종만 선교사

홍종만선교사님은 계속 치료중이신데 건강이 신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본교회 교우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한인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로 힘쓰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① 홍선교사님의 쾌유 및 사역의 계속을 위해
- ② 홍콩한인교회에 성령님의 각별하신 보호가 임하시기를
- ③ 중공선교의 지장없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애굽-이준교 선교사

7월 26일 카스르 엘 도바라 교회에서 성찬식 집례를 도왔으며, 28일 애굽복음주의신학교 교수 사무엘 요셉목사를 방문, 8월 3-6 일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한 목사수양회에 참석하여 현지인 목사들과 협의, 8월 6일 미니아교회지원 8월 9일 쇼브라 알 노즈하교회에서 한국교회소개, 8월 13일 애굽복음주의교단 총무 사무엘 하비브목사에게 지교회 지원금전달, 한인교회 철야기도회, 8월 21일 동산토건 길코현장 직원 및 기능공들을 위한 영화상영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었습니다.

기도제목

카이로 한인교회와 애굽현지인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부탁

서독-육호기 선교사

금번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유럽전도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육호기 선교사님 및 한인교회들의 수고와 여러 기관 및 교민들의 협조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그동안 반정부적이요, 참 신앙을 떠났던 많은 교포신자들 및 교민들이 복음적 신앙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졌으며 집회장소가 비좁아 주위에 천막을 칠 정도로 전도집회가 대성황이었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밤을 새워 철야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금번 유럽전도대회는 복음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서구교회에 복음의 진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① 유럽전도대회 후의 결과가 세계전도 집회를 낳을 수 있도록
- ② 선교사님과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 ③ 금번 집회시 결심한 교포성도들의 변치않는 신앙성장을 위해

호주-김태현 선교사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케 된 선교부의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실천되고 있으며 선원선교등에 계속 진력하고 있고, 호주에 기향하는 외국인 선원들 전도 및 원주민 선교의 길을 개척코자 애쓰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 선교지 정착에 어려움도 많으므로 성도들의 기도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안정된 발전과 선원선교를 위해
- ② 협력선교가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여러가지 어려운 선교현실을 잘 극복토록 하나님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게서 인도하고 계시며 교회는 안정된 영적성장의 제도에 이르도록 힘쓰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큰 경제난국으로 교포들의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교우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 및 교회의 큰 평안을 위해
- ② 아르헨티나 사회의 경제안정을 위해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7월 23일 사택을 교회내 교육관으로 옮기고 8월 1~31일에 걸쳐 총동원전도의 달로 행사하였습니다. 8월 12~17일 북한선교회 남미성회 일정따라 부흥사경회 (강사 정석홍목사), 8월 18일 북한선교회 지부장임 조찬기도회, 8월 24~25일 남제직 수련회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 기도제목 *

- ① 현지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 ②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칠 레-유 재 일 선교사

7월 26일 한인연합장로교회 남전도회를 창립하여 당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조직케 되었고 성경통신과 보통한 교재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창세기, 출애굽기) 8월 5일 칠레장로교 총회 인사와 간담회, 8월 24일 칠레장로교 총회인사와 본부선교시찰단과 선교협의회를 가졌습니다. 8월 24일에는 한인연합장로교회 사단법인정관을 법무부에 접수시켰고 8월 27일 칠레제일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본교회 여전도 회원 주선)

* 기도제목 *

- ① 칠레장로교 제1교회 콘테세목사님의 수술 경과를 위해
- ②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③ 한인교회 성전건축 및 한인연합장로교회 사단법인 정관 수속과 선교부등록을 위해

인 도-엘리야 겔간 선교사

파카치크(PARKACHIK)에서 10월부터 일할 계획이며 푸릭어로 성경번역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카쉬미르 복음동지회(K. E. F)와 협력하면서 수루게곡 전도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 ① 푸릭어 신약성경 번역작업을 위해
- ② 선교사님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증가하도록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유 선교사님은 8월 22일~9월 5일에 걸쳐 고국에 일시귀국하였고 선교보고, 특강으로 바쁜 일정을 마치고 임지에 귀환하셨으며 에리모진료소장으로 일하시는 신임지에서도 여전히 병원 대합실 전도 등으로 선교활동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권사님은 폭우중에도 부인성경반 인도차 광미에까지 다니시는등 복음사역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 기도제목 *

- ① 새로운 임지에서 권능이 더 나타나시도록
- ② 선교사님과 이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7월 6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도착하신 김창인목사님 일행과 만나 말씀을 나누고 8월 21일 선교지 순방하시는 최석주장로, 김영휘강도사 일행을 만나 보고 및 앞으로 계획을 협의 하였습니다.

* 기도제목 *

논문통과 및 선교를 위한 효과적 시간관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본부소식 □

1. 8월 30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2. 그동안 선교지 순방중이던 김영휘강도사님은 9월 15일 귀국, 최석주장로는 9월 18일 은혜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였습니다.

3. 선교지 순방지역별보고, 금번선교지 순방중의 사함을 추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나 본 지면을 통해 우선 크게 5지역에 관해서만 보고드립니다.

(1) 북미권 : ① 한인교포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지역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에 대한 영적지도가 시급 (특히 교포 2 세문제) ② 선교하는 교회들로 성장시키는 일 ③ 선교후보자(본국의)들의 선교훈련을 위한 훈련지로서 활용에 비중을 둬야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 남미권 : ① 한인교포들의 진출에 적합 ② 현재 3지역이외에 더 파송하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노선 확립가능.

(3) 유럽권 : ① 한인교포들의 진출은 많지 않으며, 있는 사람도 거의 유동적, ② 이곳에서의 선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지식과 전문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에 웨이퍼박사 방문은 이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봅니다.

(4) 아프리카권 (애급중심) : ① 중동에 나가있는 한인 교포가 나날이 증가하고 카이로가 중심이므로 중동 지역까지 카바할 수 있음. ② 특히 아랍어는 최소한 5년의 공부가 필요하므로 이지역 선교후보자의 어학훈련필요. ③ 현지교단 및 교회가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 연합하기를 무척 원함. 이들에 대한 정구적 지원이 좋은 길임을 느꼈습니다.

(5) 인도권 (카시미르지역을 중심) ① 엘랴야 겔간 선교사와 우리는 매우 귀중한 선교에 대한 시간을 보

냄. 인도지역은 특히 후진지역이므로 사회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많은 복지센터 요망. ② 겔간 선교사는 농업기술지도, 약방설립, 제방쌓기, 마을문고등을 차례로 계획하고 있고 특히 푸릭어로 신약성경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여 지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1차로 완료되었고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전문기술을 겸한 선교사(의료, 농업, 언어, 번역등)가 필요합니다. (기타는 추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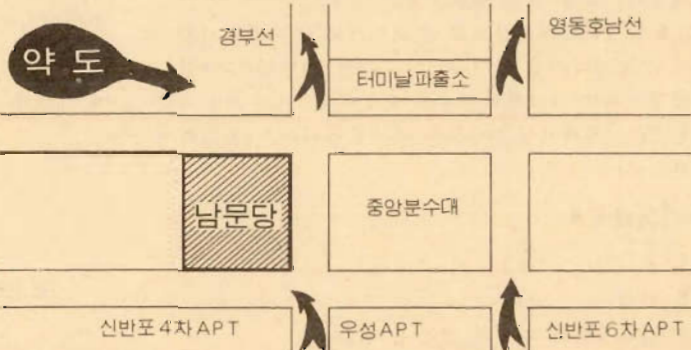


(로마의 성베드로사원 광장에서
최석주 장로와 김영휘 강도사)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금·은
시 계

金正泰 집사



터미널 강남지하상가(중앙분수대) 599-3776, 593-0192

월간교계 뉴우스

통일교 관련자 엄벌

경북지역 노회·각교단·기관서

지난 9월 8일부터~12일까지 열린 경북 지역 노회(경북·대구, 경북, 경안, 경서, 안동, 경동, 경중,)에서는 통일교 관련자들에게 면직 제명, 출교키로 결의하는 한편 기상(其長)과 예장(통합), 감리교, 성결교등에서도 관련자 징계에 착수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최근 통일교의 주선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계지도자 및 장로들이 40여명으로 밝혀짐에 따라, 각 교단은 이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인 세미나 성황

한국기독교 언론인협회(회장 손경수)는 지난 9월 9일~10일 양일간 미 8군 수양관에서 기독교언론세미나를 열고 최근 한국교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언론인들의 견해를 표명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김준곤목사의 말씀을 듣고 신학교문제, 통일교 집단문제, 사립학교 정관 개정문제, 부흥사문제, 언론인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 분과별 토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공동대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우리는 신학교의 난립과 통일교 집단등 이단 종교 집단의 교계침투, 그리고 일부 잘못된 부흥운동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재차 다짐한다.

우리는 신학교의 난립현상이 먼저 한국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당국의 신학교 정비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재고를 건의한다.

우리는 각 교단이 한국 교계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 종파와 통일교 집단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범교단적인 기구를 구성하도록 건의한다. 또 이같은 일을 위해 교단지도자, 전문가, 언론인들로 간담회를 열 것도 건의한다.

우리는 당국의 사립학교 정관 개정 지시에 대해 선교적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한다.

우리는 교회의 건전한 부흥운동을 위해 부흥사의 실상을 심층취재 보도한다.

우리는 기독교 언론인들의 급여와 처우 개선은 한국기독교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총회센터(회관) 기공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회관 기공예배가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 강남구 삼성동 산 36-4에 위치한 센터부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4백여명의 내외기빈(증경총회장, 총회임원, 각지방 노회임원, 센터건립 위원등)이 참석한 동 기공예배는 위원장 정태성장로의 사회로 진행, 최성원목사의 기도, 이영수목사의 「지혜로운 장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3천 5백교회 1백 50만 교우들의 신앙지도 및 행정사무, 대내외 전도 및 선교, 교육을 맡을 동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연건평 2,263평으로 짓게 된다.

동 센터 완공예정은 82년 8월말로 예정하고 있다.

홍콩에 이만열선교사 파송

홍희헌 필리핀선교사로

북한선교회(회장 김창인목사)는 총회선교부의 파송으로 홍콩에 이만열선교사를 지난 9월 16일 보냈다.

파송예배는 지난 9월 13일 충현교회당에서 오석용 총회 선교국장의 사회로 진행, 김리관목사(북한선교의 이사)의 기도, 그리고 김창인목사의 「전도는!」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총회 총무 정봉조목사가 파송장을 전달했다.

한편 필리핀선교사 홍희헌목사 파송예배도 9월 20일 대봉제일교회당에서 가졌다.

통일찬송가 발간 최신

내년 부활절 사용토록 추진

통일찬송가 발간작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찬송가공회의 발족과 함께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동 통일찬송가 발간작업은 내년 부활절 아침 온 8백만 성도가 다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계 성례식 거행

— 성찬 예식의 뜻을 바로 알고 참여해야 —

교회는 추계성례식을 오는 10월 8-11일에 갖기로 했다.

1년에 봄, 가을로 나누어 갖는 성례식은 문답, 세례식, 성찬예식으로 이어져 열리게 된다.

한편 이 성례주간을 맞아 문답,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일정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문 답 / 10월 8 일 오전10시 ~오후 9 시까지
10월 9 일 오전10시 ~오후 5 시까지
2. 세 려 식 / 10월 9 일 오후7시30분, 본당에서

3. 성찬예식 / 10월11일 I, II, III, IV부 대예배시에

4. 문답자격 / ① 학습 : 교회 출석 한지 6개월 이상
② 세례 : 학습 후 6개월 이상
③ 입교 : 유아세례 받은 사람으로 만 15세 이상
④ 유아세례 : 만 2세 미만의 아기로 부모의 신앙적 합의자
5. 문답공부 / 10월5, 6일 오후7시 유년부실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선교여행 마치고 귀국

지난 6월 22일 해외선교 여행차 출국한 김창인 목사는 8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지난 9월 9일 이종윤협동목사와 함께 귀국했다.

이번 여행지는 독일, 영국, 덴마크, 화란, 프랑스, 서바나, 오지리,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미국 등 유럽과 미주를 다니며 목회에 성공한 지도자를 찾아 교회성장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부흥회를 열며 특히 공산권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 한국의 북한 선교회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최석주 장로와

김영휘 강도사도

한편 해외선교지 순방차 출국했던 최석주 장로와 김영휘 강도사도 교회에서 파송한 파송지를 전부 순회하고 무사히 귀국했다.

교회설립 28주년 맞아

20년 근속자 표창

교회는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아 20년 근속자를 9월 6일 저녁예배시 표창했다.

금번 표창자는 본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후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해 온 분들로 최석주 장로, 황창룡 장로 및 계수익, 김정옥, 이옥녀, 이덕순, 정봉조, 함충현, 윤순탄 권사 등 9명이다.

주교 계절학교

종합평가회 가져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당회실에서 금년도 여름 계절학교의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교육위원회 위원과 각부 부장들이 모여 가진 이 평가회는 지난 계절학교에는 실시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등을 솔직히 나누며 내년을 위한 제안등을 하기도 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실제적인 예산편성, 수양회시 대외강사 초빙문제등이 건의되었다.

고등부 부지도에

윤태곤 전도사 임명

교회는 그동안 공석으로 있는 고등부 부지도에 윤태곤 전도사를 임명했다.

윤전도사는 총신 신학연구원 3학년에 재학중이고 성천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했다.

□ 인사이동 □

1. 예배위원회

1) 성가부

- ① 임명
조성숙(소프라노) 제 1 성가대

2. 교육위원회

1) 주일학교

- ①임명
유치부 이인숙(여) 임시교사
유치부 박진숙(여) 임시교사
유치부 양세자(여) 임시교사
초등부 오화자(여) 임시교사
장새 I 홍경선(여) 임시교사

② 퇴임

- | | | |
|-----|--------|------|
| 유치부 | 임재현(여) | 지방전출 |
| 초등부 | 최영희(여) | 타교회 |
| 초등부 | 이의준(남) | 지방전출 |
| 초등부 | 강영미(여) | 개인사정 |
| 초등부 | 이인광(남) | 직장관계 |
| 초등부 | 김명혜(여) | 개인사정 |
| 중등부 | 한문철(남) | 개인사정 |
| 중등부 | 심지철(남) | 개인사정 |

□ 토막소식 □

*...어린이새신자부는 유·초등부에 등반된 학생들의 출석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며 10월 4일 최미희 선생의 연구수업이 있다.

*...영아부는 10월 20일 십계명의
우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치부는 10월 9일 그림그리
기 대회를 실시하고 10일에는 학부
모 초청 좌담회, 13일에는 자연학
습, 21일에는 김변자 선생을 모시
고 교사특강을 갖는다.

*...유년부는 10월 중 학급을 재편
성하며 16일 학생심방 보고회를 갖
고 18일 자체 사무검열을 실시한다.
25일에는 중부, 인현시장과 대한극
장 앞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할 계획
이다.

*...초등부는 18일 학생심방 결과
보고회를 가지고 구역장 훈련을 실
시한다.

*...중등부는 10월 24일 시와 찬양

의 밤을 개최하며 25일에는 독후감
발표회를, 27일은 학원 방문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고등부는 10월을 전체학생 심
방의 달로 정하고 11일에는 독서발
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부는 10월 4일 정기총회
를 열고 6일, 13일, 20일, 27일 각
학년 수련회를 중현 기도원에서 실
시할 계획이다. 9일에는 산상예배,
30일에는 임원훈련을 계획중이다.

*...청년부는 10월 2~3일 중현
기도원에서 임원·반장·스텝 수련
회를 가지며 26일부터 11월 6일까
지를 전체학생 심방기간으로 정했
다.

*...장년새신자 1부(학습반)는 9

월 6일 남성호 목사의 주례로 11
명이 학습을 받았다. 여기에 손동
운 장로가 배석했다.

*...장년새신자 2부(세례반)은 9
월 20일 김창근 목사 주례로 4명
(남 1, 여 3)의 세례식을 가졌다.
손동운 장로가 배석했다.

*...장년부는 10월 15일 고아원(박
애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산업전도부는 10월 11일은 전
도훈련, 18일에는 반장·임원훈련을
실시한다.

*...선교부는 10월 10일 중고반 특
강이 있다.

*...새가정부는 10월 22일부터 24
일까지 학생신앙강좌를 가질 계획
이다.

각 종 통 계

1981. 9. 6 (매월 첫 주 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 주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
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광주에
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서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 부	245	419	총세대수	
		II 부	458	1,025		
		III 부	342	753		
		IV 부	219	528		
		계	1,264	2,725		
배	주 일 예 배	311	443	754	교인	남 3,818
		삼 일 저 녀	141	322		여 5,605
		계	1,264	2,725		총수 9,423
		411	565	976		
주	일	어린이새신자부	23	37	신	남 1,999
		영 아 부	200	151		여 3,431
		유 치 부	154	194		계 5,430
		유 년 부	203	228		남 513
		초 등 부	228	210		여 419
		중 등 부	183	167		계 932
		고 등 부	134	196		남 299
		대 학 부	70	75		여 416
		청 년 부	72	128		계 715
		장 새 I 부	58	141		남 1,023
학	교	장 새 II 부	19	57	인	여 1,383
		장 년 부	21	253		계 2,406
		노 년 부	38	110		남 1,023
		산 업 교 육 부	17	59		여 1,383
		선 교 부	58	126		계 2,406
		새 가 정 부	16	25		
		합 계	3,210	5,647		

10월의 행사

- 1 일 조찬기도회 (산업전도회)
- 4 일 정기제직회 · 재정위원회
- 9 일 세례식 · 교회전체철야기도회
- 11일 성찬예식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 18일 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 심방위원회 · 자산관리
위원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 · 출판국 월례회
- 25일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 건축위원회 월례회
- 27일 정기 당회

편집하고 나서

*...일년에 두번씩하는 성례식을 이번 10월에 하게 된다. 늘 하는 성례식이 아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며 이런 기회를 통해 신앙이 한걸음 나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성례식」특집을 마련했다. 잘 아는 이야기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고 대하느냐에 따라 많은 바람직한 생각들이 더해 지리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와 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두가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성장인 것 같다. 우선 성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성장의 목표가 뚜렷치 않아서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스도안에서의 성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소개한다. 무엇이 성장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성장의 개념과는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글이라고 본다. 성장은 바로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성장의 지향 목표도 삶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지어 진다.

모두가 한번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택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월 간 총 현

10월호

제 9권 제 9호

통권 제 92호.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행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10월 4일 발행

100 -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 - 3407 · 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미국으로 유학차 떠나는 윤형철·김석원목사의 환송회가 지난 8월 28일 저녁 장로·교역자 연석으로 모였다〉



〈지난 8월 30일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시 일시 귀국한 일본의 유병세평신도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했다〉



〈9월 6일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으며 제 3성가대에서 준비한 곡으로 저녁예배는 음악예배로 드렸다〉



〈교회설립 28주년을 맞으며 20년 근속자에게 수고를 치하하며 9명에게 근속 20주년 기념 표창을 했다〉



〈교회는 지난 9월 13일 주일 저녁예배시간에 북한선교회가 지원하고 총회가 파송하는 홍콩 파송 이만열선교사의 파송예배를 드렸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여름에 가졌던 계절학교 종합평가회를 교육위원과 해당부서 부장단과 함께 가졌다〉



실로암
못가에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 : 23 - 26〉